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 재난 골든타임 72**

2021. 10

교육부

□ 추진배경

- 전국 학교에서 연간 약 1,600건의 재난이 발생하는데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은 대부분 골든타임 이후 진행되고 있음(10일 ~ 2달 지연 또는 미시행)

* 화재 등 재난을 겪은 아이들은 현장에 강하거나 대피한 경험, 상처와 시망지목격으로 인한 공포의 상기로 심신의 불안과 통증, 학업 집중도 하락 등을 지속 경험할 수 있으며,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미흡 시 10%는 만성으로 불안·성인 우울증 등 발생 가능(지살 12배, 긴염 25배 등 연구결과 有)



□ 추진내용

- 아동을 포함한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초동대응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를 간소화하고 골든타임인 72시간 내에 찾아가 맞춤형 정책 제공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골든타임 72시간 내에 관계자 협의, 행정조치를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심리 안정화를 실시하여 우리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사전예방
- 각종 재난, 코로나 팬데믹, 학교와 가정의 혼란 상태에도 대응할 방법을 마련해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이 재난 트라우마 없이 건강한 마음으로 생활 가능
- 재난 트라우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시설법」 개정안 발의로 법적 근거 마련

<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전·후 비교 >

국민디자인단 운영 前(AS-IS)	국민디자인단 운영 後(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트라우마 초동대응 업무 전문가 부족 심리안정화 지원으로 장기간 악영향 발생 대형 재난 외에는 직접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해야 심리 진단과 심리 안정화, 상담 지원 자발적인 치료의 어려움과 학생에 한정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에 특화된 맞춤형 초동대응 전문가 지원 신속한 지원으로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학교현장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아이의 충격 받은 마음 들봄 지원 (모바일) 영상회의, 대처방법 제공으로 심리 회복 강화, 모두가 함께 마음 편히 참여하는 심리안정화

□ 향후계획

-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학생 가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지원 확대
- 정책 성과공유를 통해 지자체, 보험사 등 전국적으로 확산을 추진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 재난 골든타임 72

과제유형	기획·협업과제	정책분야	생활안전
주관기관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주관기관 과제담당자	황상민 주무관 연락처 : 044-203-6301 이메일 : smmm5@korea.kr
협업기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약칭: 안전원) 기획조정실 재난트라우마관리팀	협업기관 과제담당자	이은경 팀장 연락처 : 02-781-0111 이메일 : lek@koies.or.kr

1

과제 개요

◆ (사업목표) 학교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즉각적 대응체계 마련

◆ (주요고객) 학교 전 구성원(학교 관리자와의 협의에 따름)

◆ (추진기간) 2021.02. ~ 2021.12.

※ 국민정책디자인단 공모시점부터의 준비기간 등을 포함하며 실제사업을 추진한 '21.06 ~ 10.에 해당

◆ (소요예산) 273,986천 원

◆ (추진내용)

- 화재현장 심리지원을 위한 심리전문가의 '찾아가는 서비스' 조직 및 시범운영
-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위한 모바일 웹페이지 서비스 개발 및 지원
- 빠른 출동이 가능한 심리상담전문가 인력풀 구축
- 화재 트라우마와 대처법에 대해 안내할 교육 매뉴얼 개발
- 학교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안전원 내 신규 공제서비스 개발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학교 재난 트라우마 관리 정책 마련에 관한 연구 등

◆ (관련사진)



전문가 컨설팅



정책수요자 참여



관련 수요자 요구파악



'내 손 안의 마음돌봄소'

2

추진배경

※ 추진목표

- 화재로 시작, 학교 모든 재난의 트라우마를 “골든타임 내 예방하는 초동대응” 실시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극 대응 가능한 온택트(비대면) 찾아가는 서비스 설계
 - * 대면 대응 효과가 높은 심리지원의 특성상 대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운영

□ 화재는 **국민 70%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문제**

- (정책 수요자) 학생, 교직원, 그 가족은 국민 70%인 약 3,600만 명에 달하며, 연구결과 15.4%인 약 55만 명이 화재 경험 시 재난 트라우마 영향 발생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화재 재난 트라우마 **초동대응이 매우 취약**

- 대규모 재난에 국한된 트라우마 심리치료 지원, 심리지원을 위한 대상으로 포함조차 되지 못한 재난들, 심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누락 문제 발견
 - * 화염과 연기 속에 긴 시간 갇힌 교직원의 대상자 선정 문제, 손가락 상해로 미술 분야 진학이 좌절된 학생, 그 가족이 트라우마 심리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호소함
- 현실에서 발견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수렴하여 정책 필요성 탐진
 - 학교에서 화재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 안정화 교육 시 각종 생활영역에서의 재난 이후 심리관리의 대응력 강화 가능

□ **불안, 자살 등 학교화재 재난 트라우마 악영향을 골든타임 내 예방필요**

- (트라우마 증상) 이미 발생한 재난은 안전장소로 이동 후에도 극심한 불안, 서러움, 무력감, 공간과 주변인 불신, 자살과 죽음의 침습 등이 발현
- (학업 관련) 학교에서의 재난 트라우마는 정신발달, 안정뿐 아니라 학업과도 연관, 학교라는 공간 특성상 재난 트라우마의 증상은 교실과 교보재, 교사에의 불신, 집중력 붕괴로 성취도와 능력 저하 위험 존재
 - *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대면이 어려우나 가족에게까지 초동대응법 안내 필요

[사례] ① 2020. 경기 동탄 D초등학교 교실 화재



교직원 3명, 어린이 2명 총 5명 화재현장 직접목격, 유해 연기흡입, 어린이 140여 명 긴급대피

② 2016. 경기 동탄 B초등학교 체육관 화재



교직원, 어린이 130여 명 긴급대피, 이중 어린이 20여 명은 화재현장 직접목격, 굴착기로 대피

③ 2010. 충남 S대학교 실험실습실 폭발사고



교수 1인 사망, 박사 1인 화상, 안구부상, 학생 4인은 사망사고 직접목격, 정신충격과 청각장애 동반

④ 그 밖의 교육시설 재난사고

서울 K대학교 실험실습실 호흡기질환 집단감염(2015)

[경향포토]폐렴 발생으로 건국대 동물생명과학관 건물 폐쇄



강원도 S대학교 자연과학 실험실습실 폭발 사고(2017)

상지대서 질산-염산 화학반응으로 5명 부



경북 K대 화학관 실험실습실 폭발 사고(2019)

‘실험실 폭발사고 치료비 미지급’ 경북대학교에 대한 입장한 국경감사 촉구



3

추진내용

**1 STEP 이해하기 학교 화재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이해****① 학교 화재의 트라우마 연관성**

- 화재와 같은 충격사건 경험자 중 15.4%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경험
 -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공격적으로 행동하거나, 기쁨을 경험할 수 없거나, 안절부절 하는 등 충격사건 노출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지속된 심리적 어려움
- 매년 약 185건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트라우마 발생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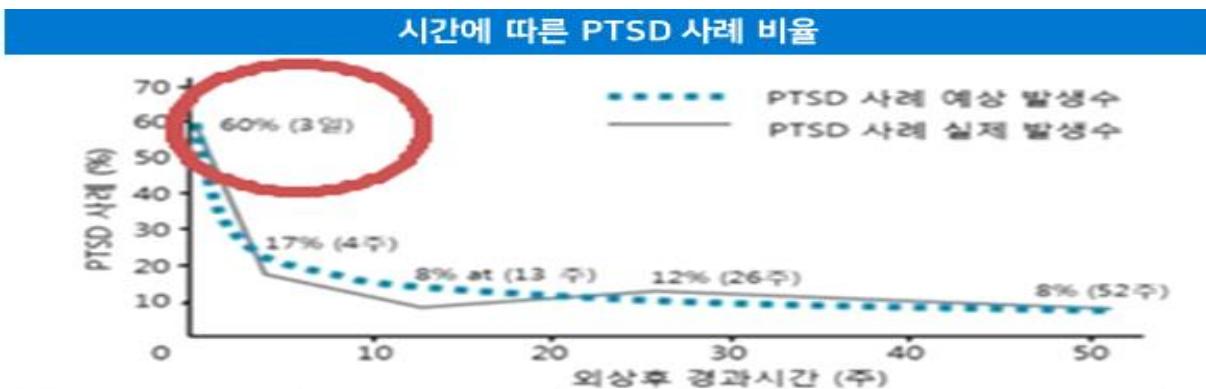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최근 3년 평균
학교 화재발생	205건	173건	178건	185건

출처: 소방청 화재통계

- 서울 등지의 대형화재 사례로 확인한 결과 전교생에게 영향 가능

②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골든타임의 중요성

- 72시간인 3일까지 증상 발현 극심, 이후 내재화되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급작스럽게 발현되거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동대응 중요



Richards, The prevention of post-traumatic stress after armed robbery: the impact of a training programme within the Leeds Permanent Building Society. PhD thesis, Leeds Metropolitan University, 1997. In NICE, Gaskell and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2005.

재난 트라우마 최고조 시간 = 3일 = 72시간 이내

= 심리적 개입 적기 = 내재화 되기 전 증상 약화 가능 = 심리, 사회적 복구 적기

○ 골든타임(72시간)에 가장 큰 심리적 고통 경험

→ 3일(72시간) 이내에 가장 극심한 증상을 보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나 내재화되는 양상

(The prevention of post-traumatic stress after armed robbery, Richards & David Arthur, 1997)

○ 골든타임(72시간) 관련 연구결과

→ 화재 직후 트라우마 증상이 극심한 초기에는 급성 스트레스장애(ASD) 발생
이때 심리적 개입으로 증상 약화와 심리·사회적 복구를 촉진 가능(적기)

(Bohl, 1990; Kennedy-Ewing, 1989; Mantell, 1986; McMains, 1986; Mitchell & Bray, 1990; Robinson, 1989; Somodevilla, 1986)



③ 아동청소년기의 트라우마 방지 시 나타나는 위험성

○ 성인기, 노년기까지의 신체와 정신건강 악영향

- 어린 시절 경험한 트라우마가 성인기에 이르러서까지 심리적, 신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연구결과 다수 존재
- 아동기 트라우마 경험자는 성인기 우울 경험(송리라, 2016)
- 간염 발병 2.5배, 자살 확률 12배 더 높아(헬스조선, 2016.05.25.)



○ 아동청소년기의 화재 경험 트라우마 발생지도 설계

- 화재 발생학교의 대표 학생, 교직원, 트라우마 전문가와 함께 진행
- 집으로 돌아간 이후 계속해서 악화되는 불안, 공포 심리를 표현

A 초등학교 학생의 고객여정맵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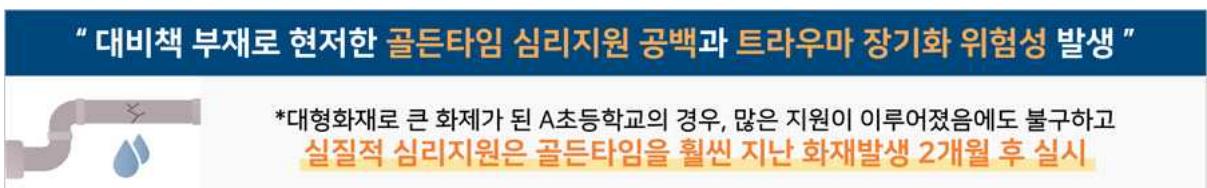


④ 그럼에도 학교 화재 트라우마 심리 안정화 초동대응 취약

- (법령 부재) 관련 법령에 따라 심리적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교내 안전사고와 달리, 화재와 재난에 대한 심리지원은 법적·체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

사고 발생지 = 학교(교육시설)		
학교 안전사고	분류	교육시설 안전사고
학교안전법	관련 법령	교육시설법(재난안전법)
학교폭력, 계단에서 실족하는 등의 안전사고	예시	화재, 풍·수해 등의 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
0	안전사고 심리상담 지원	X
*관련 법령 존재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심리상담 지원 법령	X

- (신속한 지원정책 부재)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상황을 즉시 확인하고 심리 안정화를 실시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 시스템 부재
 - 골든타임인 72시간, 3일 내의 빠른 심리개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재난 트라우마 관리의 교과서 격인 연구결과는 다수 존재
 - 그러나 학교에서 화재 발생 시 심리 안정화 지원이 수개월 후 실시되는 등 효과적인 치료 기간을 놓치는 사례 지속 발생



- (재난 통보 시스템은 존재) 재난 발생을 빨리 알 수 있다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심리 안정화 개입 시작 시각, 활용방법 모색 필요

대부분 당일 재난 상황을 안전원에 통보, 24시간 이내 학교현장 도착				
재난상황조서	화재 발생	재난상황 접수	현장 출동	접수 후 소요시간
A 초등학교	'19.06.26. 16:00	당일 16:30	당일 18:00	1시간 30분 후 투입
B 고등학교	'20.11.25. 04:20	당일 16:29	익일 14:00	21시간 30분 후 투입



안전원이 현장에 도착한 경기 B초등학교 화재 현장의 실사

2 STEP 국민요구 발견하기 학교화재경험 정책수요자 심층인터뷰

① 화재 발생학교 학생과 교직원 심층 인터뷰 실시[국민정책디자인단 등]

- (심리 안정화의 미지원) 화재에 특화된 적극적 심리 안정화 지원 필요
 - 모든 화재에 심리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재산피해가 큰 대형 재난이 아닌 경우 상해자 발생에도 심리 안정화 미지원 사례 다수
- (화재 트라우마에 대한 예방 교육 부족) 당사자가 초기대응 방법을 모름

근무 중 감전사고로 화상을 입은 C 어린이집 교직원 인터뷰

 6개월 전이네요. 혼자 도움을 찾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는 안내만 있었었어도 지금까지 이 정도로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사고 전의 일상이 너무 간절해요.

-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 필요) 재난 이후 심리 안정화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 학업, 업무 등으로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재난 피해 관련 루머 존재) 정확한 정보의 생산, 전달을 위한 지원 필요

대형화재로 번졌던 A 초등학교 학생 인터뷰

 (화재 당시 실제 사망자는 없었음)
○○○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어요. 선생님은 병원 가셨고 다들 정신없으니까..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무섭고 걱정되고.. 저도 모르니까..

-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정확한 화재 관련 정보(피해 현황, 대응 방법 등)를 전달할 매체에 대한 대응방법 지원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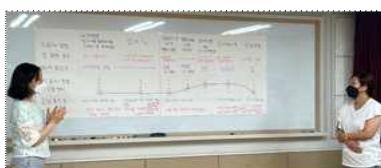
② 화재 경험 당시 수요자가 필요로 했던 정책 서비스 모델의 조사

- 화재 후 심리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찾아오는 정책 서비스 개발 요청
- 출동을 위해 학교 화재 트라우마에 특화된 심리전문가 인력 지원 요청
- 화재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후유증·대처법 관련 사전예방 교육 요청
- 교직원, 가족 보호자를 비롯한 전 구성원 대상의 심리지원 제공 요청

정책수요자 목소리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구체화



“화재 직후 ‘찾아오는’ 것이 필요”
D 초등학교 화재 초기진압 교직원



고객여정맵을 통한 사각지대 발견
C 어린이집 감전사고 경험 교직원



퍼소나 설정을 통한 안정감 형성
A 초등학교 대형화재 경험 학생

3 STEP 진짜문제 정의하기 국민의 진짜문제를 통한 목표·과업 도출

① [진짜문제 발견] 화재 트라우마 관리 매뉴얼 부재, 필요 인식 부족

- 지역적 통계로 보면 화재발생이 건이 많지만 단일학교로 보면 1년에 1번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재난 트라우마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적극적, 전문적인 심리 안정화 필요성 인식 미흡

방화문을 못 열어서 구조될 때까지 갇혀 있던 선생님도 심리 지원을 받지 못하셨어요
또 불이 났을 때 심리가 불안할 수 있는데.. 법으로나 전문기관에서 심리안정화 대상자를 선정 해 주면 좋겠어요

A초등학교 대형 화재에 개입한 Wee센터 선생님



② 갑작스러운 대형화재 시에는 초동대응 체계 부재, 전문인력 부족

- 학교 화재 발생 이후 트라우마 관리가 필요해지면(학교 내의 수요 등) 미숙한 대처방안 모색과 외부기관 탐색 등 자연이 발생하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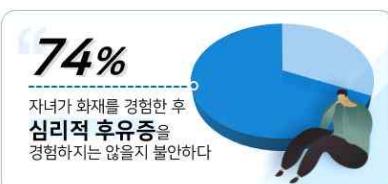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원장(A 초등학교 화재 트라우마 개입기관)



A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화재가 나고 수개월이 지나서야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심리적 대처를 위한 골든타임은 지나버린 시기 가 되거든요. 화재 현장에 빠르게 개입하는 것만으로도 더 큰 트라우마로 번지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③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생 가족 불안 심각 재확인

- (대국민 설문 실시) 학생 가족보호자 대상 대국민 설문 진행
 - (목적) '찾아가는 서비스'의 필요성에 관한 범국민적 의견 수렴
 - (기간) '21.08.31~'21.09.27. (참여인원) 5,651명 참여
 - (결과) 현행 화재 트라우마 지원정책의 어려움과 자연 문제 인식과 학부모가 가지는 자녀의 심리적 후유증 불안감, 정책 중요성 확인
 (28%) 학교 화재 시 심리상담이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
 (74%) 자녀가 화재를 경험한 후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할까봐 불안
 (94%) 화재 초동대응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심리 안정화도 중요



4 STEP 아이디어 발전하기 국민 정책수요자와 함께한 정책 구체화

① [신속성 확보 방법] 재난 통보 시스템 정보를 연계하여 직접 지원

- 교육부와 안전원의 당일에도 화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 국민정책디자인단과 구축한 심리 전문가 인력풀(전국 190명 이상) 운영
- 체계 간소화로 단계별 지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골든타임 내 지원



* 위험정도 파악(스크리닝 검사) 후, 저·중 위험군의 경우 비대면 서비스와 집체교육으로 긴급 대처법 안내.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시 즉시 치료기관 연계 등 연계체계 구축

② [찾아가는 정책개발] 골든타임 72시간 내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시행할 수 있고 아이들이 오랜 시간 생활하는 가정에도 찾아갈 수 있는 비대면 + 대면 지원 정책
 - 화재 시 즉시 대면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초동대응을 함께할 전문가 지원
 - 학생, 교직원, 학부모, 학생 가족에게 대면 심리 안정화 실시
 - 심리 안정화 전문 콘텐츠를 영상으로 개발, 문자와 웹으로 가정에 제공



③ [국민이 원하는 방식] 언제든 어디든 찾아가는 서비스

- '내 손 안의 마음돌봄소(가칭, 모바일 서비스)' 병행
- 신속대응을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와 안정화 기법(33개 아카이브)
- 화재 경험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주하는 질문의 전문가(FAQ)
- 학부모와 학생 가족이 학교에 자주하는 질문의 전문가(FAQ)
- 화재 트라우마 스크리닝(위험정도 선별)을 위한 질문지 등
 - (일상적·필수적 정보체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문자와 같이, 친숙한 문자를 통해 일상적이지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 역할 수행
 - (내가 너에게, 내가 나에게) 문자를 받은 누구든 긴급심리지원 방법을 알 수 있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선(善)순환적 심리지원체계 형성
 - (코로나 시국에 부합한 즉각 지원책) 아동학대 유관기관의 즉각 대응과 같이 현시대에 맞는 즉각 지원 방안(문자, 웹서비스)의 도출

 **추진 배경**

학교 재난 트라우마 대응체계의 필요성

 **킥오프** | 21.06.02.

재난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14개 과업** 도출

 **2차** | 21.06.11.

가장 **빈도가 높은 '화재'** 트라우마에 집중

 **3차~** | 21.06.18.

수요자의 목소리에 부응한 '**찾아가는 서비스**'

학교화재 트라우마 즉각 대응 목표




전문가 킥오프 회의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핵심과업 도출 논의

④ [학생대표 만족 확인] 안심되고 든든할 것 같다는 의견 제시

대형화재로 번졌던 A 초등학교 학생의 의견



학생A

“**불이 났을 때 심리치료를 저희가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이든 먼저 찾아와준다면 마음이 안심되고 든든할 것 같아요.**”

* 화재 발생학교의 대표 학생으로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원으로 참여한 초등학생

5 STEP 정책 서비스 전달하기 찾아가는 서비스, 예방 교육을 실시

① [실행 근거 마련]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법적 근거 마련

- 교육시설법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발의 완료('21.10.7.)
 - (목적) 공제서비스의 실효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형태) 학교 내 재난(화재 포함)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간접적으로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는 학생, 교직원, 가족 등에게 심리 안정화 지원
- 학교(유치원 등 포함)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신규 공제서비스 개발
 - (목적) 화재 경험 이후 심리 안정화에 대한 개인적 비용 감소
 - (형태) 공제제도 가입 학교(전국 98%)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

② [시범 운영 실행] 학교 화재 트라우마 심리안정화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 (개요) 화재 발생학교(서울 S고등학교 등) 화재 직접 경험자 대상 진행
 - (일시) '21.09. ~ 접수 시작 / 7개교 시행 중
 - (대상) 화재 직접 경험자 교직원과 재난 담당 교직원 총 100여 명(20명 실시)
 - (내용) 찾아가는 서비스 전 과정 실제 경험 후 만족도 조사와 추천 여부 확인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서울S고등학교 수요자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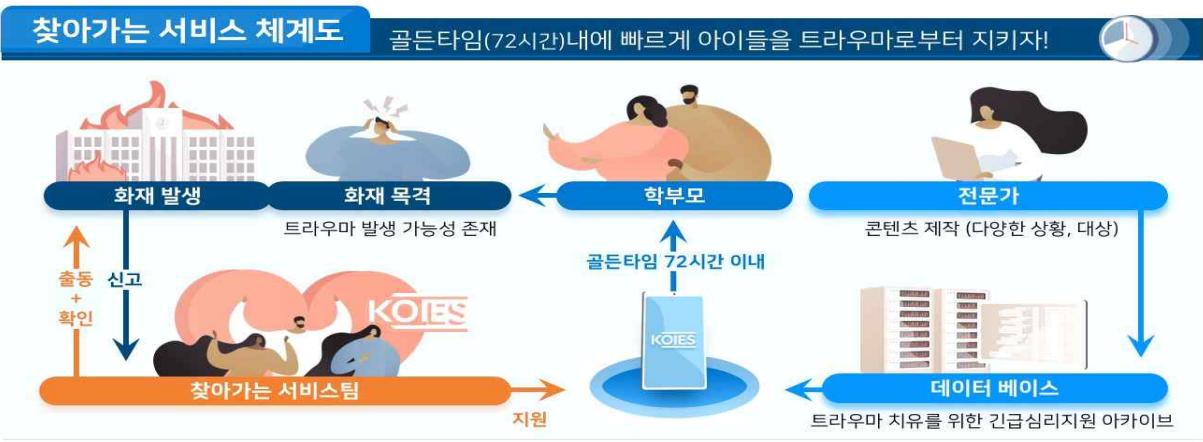
교육부에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충분히 이론을 교육하였습니다.

강사님이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니 짐증도 잘되고
차수를 해 주실 것 같을 느낌이 들었습니다.

③ [정책 지속성 확보]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센터 등 전문조직 건립 추진

- 화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전염병에 따른 트라우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행정안전부의 국민정책디자인단 시행 성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학교 재난 트라우마 관리 모델을 세계에 홍보, 정책 전파(IF디자인어워드 출작 실시)



- 골든타임인 72시간 내 대한민국 국민 중 아동청소년기의 트라우마를 집중 예방하여 건강한 성인, 노년기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		
연도	주요 추진사항	소요 예산 (백만원)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 트라우마 즉각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모바일 웹페이지 서비스 개발 및 지원 현장출동을 위한 심리상담전문가 인력풀 구축 트라우마 이해·대처법 안내를 위한 교육 매뉴얼 개발 교육시설법 법령 개정 진행 및 안전원 공제제도 내 심리지원 공제서비스 신설 	273백만원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관리 기구 신설 전문 기구 신설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관리 기구 운영 인력풀 전문성 강화 교육 '내 손안의 마음들봄소' 아카이브 자료 축적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찾아가는 서비스' 초동 대응 팀 운영 교육시설법 법령 개정에 따른 공제제도 운영 심리지원 공제서비스 실시 재난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500백만원 (추후 계획에 따른)
2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관리 영향 전파 각 지자체별 전국 기구 신설 유관 국가기관과의 업무 협약 추진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기구로서 전국 학교 현장 지원 효율화 강화 재난 트라우마 전문가 교육 및 인증제도 추진 교육 시설 재난 트라우마 연구 기능 확보 	800백만원 (추후 계획에 따른)

④ [소방서 협업 추진]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팀에 소방안전교육에 연계 요청

- 학교에서 매년 시행되는 소방방재청의 소방안전교육에 화재 트라우마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인식 개선 추진 협의 완료(충북음성소방서)

4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성과

가.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현황

구 분	성명(소속,직위)	역 할
국민	전문가A 권선주 교수(한양대) 안윤영 교수(한양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자 여정지도, 사이코드라마 활동을 통한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수렴
	전문가B 이지선 교수(한동대) 최재혁 이사(카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 마련 재난발생 시 적용되는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C 김현수 교수(한양대) 안동현 교수(한양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화된 정책 마련을 위한 진단도구 개발, 심리치료기관 연계 체계 구축
	정책 수요자 이재만 교사(은명초) 박태성 학생(은명초) 하정현 학생(은명초) 박혜영 학부모(은명초) 이문업 학부모(은명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 아이디어 발굴 수요자가 직접 경험한 어려움과 요구사항 반영 초기대응시스템 마련 필요성 논의 개정 법령 구성 내용 제안
	서비스 디자이너 서영식 대표 (이야기그룹 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성과공유대회 과제 기획 · 추진 서비스디자인 목표관리 및 과제 총괄 서비스디자인 프로세스 활용 방법론 안내 이해관계자 심층 분석 및 자료 구성
	교육부 혁신담당 정영린 과장(교육시설과) 정태성 사무관(교육시설과) 황상민 주무관(교육시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추진상황 및 사후관리 총괄 국민정책디자인단 사업 설명 및 성과 홍보
	사업담당 (신설) 정준호 본부장(기획조정실) 이은경 팀장(기획조정실) 김태온 대리(안전문화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방향 설정, 활동결과 정책 반영 및 이행 국민정책디자인단 최종보고서 정리 및 제출
	안전원 재난 트라우마 관리팀 (신설) 이병현 연구원(기획조정실) 조은주 연구원(기획조정실) 손현아 연구원(기획조정실) 차연하 연구원(기획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전문가 2인, 사회조사분석사 2인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정책 관련 업무 수행 국민정책디자인단 보고서 초안 작성

나. 국민정책디자인단 추진 성과

□ 기대효과

<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전·후 비교 >

국민디자인단 운영 前(AS-IS)	국민디자인단 운영 後(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트라우마 초동대응 업무 전문가 부족 심리안정화 지원으로 장기간 악영향 발생 대형 재난 외에는 직접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해야 심리 진단과 심리 안정화, 상담 지원 자발적인 치료의 어려움과 학생에 한정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에 특화된 맞춤형 초동대응 전문가 지원 신속한 지원으로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학교현장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아이의 충격 받은 마음 돌봄 지원 (모바일) 영상회의, 대처방법 제공으로 심리 회복 강화, 모두가 함께 마음 편히 참여하는 심리안정화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 추진성과

- 학교 화재 트라우마 심리지원을 위한 법령개정(안) 발의 완료(21.10.)
 -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학생 가족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 학교 재난 심리 안정화 지원 법령 신설로 골든타임 내 지원 근거 확보
 - (법안명)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발의일자) 2021. 10. 7.
 - (향후일정) 2021년 정기 국회에서 처리 예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복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1. 10. 7.
발의인: 윤영복·김민철·이현석
조오섭·양향자·송갑석
민형배·이병훈·권인숙
윤미향·박종근·문진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체사업(이하 "교육시설 공체사업"이라 함)을 실시함.
교육시설 공체사업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체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체손·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적·물적 피해인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인적피해에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 당사자와 가까운 학생, 교직원, 가족 등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나 긴장한 스트레스 등으로 장기간 고통받는 사례가 많은 바, 이와 같은 정신적

피해를 교육시설 공체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의 보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3항 및 제3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공체사업"을 "공체사업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의 보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내 손 안의 마음돌봄소' 웹페이지(모바일 지원) 신설 및 지속관리

- 전문가 모의상담 영상, 화재경험 이후의 보편적 심리 증상 및 대처법 등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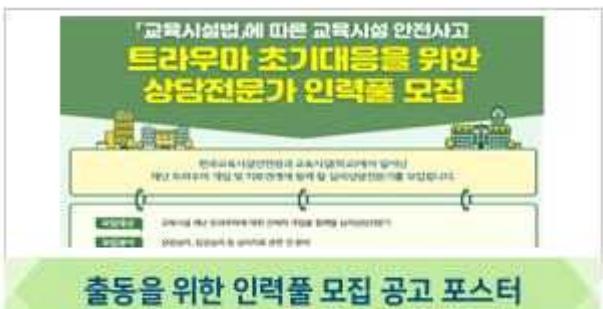
○ 화재 트라우마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 매뉴얼 3종 개발

- 대상별(학생·가족보호자, 교직원, 심리전문가)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



○ 화재 현장 출동을 위한 심리상담전문가 인력풀 신설(190여명 모집)

- 학교 화재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모집 및 역량 강화지원



○ 카드뉴스, 원컷 이미지(6회차) 등 SNS를 활용한 정책홍보 활동 강화

- 화재 트라우마 개입 관련 인식 개선 및 현장 사례 등



○ 대상별 진짜문제와 정책 디자인 성과

국민	진짜 문제	정책 디자인 성과	
학생	재난 상황 전 심리적 대응방법을 모름	심리안정화 대처를 위한 사전 예방교육 실시	
	재난 상황 이후 오래도록 충격 받은 심리상태 인지의 어려움과 대응방법 모름	재난 이후 골든타임 내 트라우마 증상의 안내	
교직원	스스로 상담센터 찾아가기 어려움	즉시 찾아가는 심리안정화 지원 실시	
	심리 안정화가 필요한 재난 인지의 기준 모호로 지원 결정의 어려움	법령(안) 발의와 스크리닝, 지원 대상 선정을 지원	
가정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 자료 부재, 전문성 부족, 민원관리 등으로 심리안정화 골든타임 지연	골든타임 내 표준화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과 행정양식, 학부모와 외부기관 질의용 Q&A 지원	
	본인도 재난경험자임에도 자발적으로 심리안정화에 참여하기 어려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학교 재난발생 상황을 심리안정화 골든타임이 지난 후 확인	전문가의 생생한 상담 콘텐츠 전송, 자조모임, 피드백 회의가 가능한 내 손안의 마음돌봄소 (모바일) 운영	
	재난 경험으로 마음이 힘든 아이들 심리 증상에 대한 인지, 이해, 대응 어려움	연령별, 재난별, 특수 상황별 대응방법을 가정으로 전송	
	재난 상황, 심리관련, 사후관리 등 일원화된 맞춤형 질의창구 모호	심리안정화 관련 질의에 실시간 응답 지원 시스템 구축	
	학교 재난발생 상황을 심리안정화 골든타임이 지난 후 확인	골든타임 내 재난 발생 상황 공유 (안전원 시스템 접수 정보)	
	연령별 재난별로 학교에 맞춰진 공통 콘텐츠 부족	상황별 맞춤형 콘텐츠 세분화와 제작, 보급, 전문가 교육 실시	
	사례 분석과 환류용 지속가능한 플랫폼 부족	학교 재난 대응 사례별 전문성 강화 플랫폼 운영	
학교 시범사업 결과	사전예방 교육 등 7개 학교 접수	코로나 19에도 가능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	서비스 만족도 80% 이상 (매우 만족, 만족 포함)

다.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시 미흡한 점 및 향후 개선방안

□ 미흡한 점(개선방안)

- 국민정책디자인단 정책 자체의 홍보 강화 검토
 -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는 모델 자체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각 부처·기관별로 협조 정도가 상이하여 정책 홍보가 강화되어 원활하게 협조받는 외부환경과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내부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
 - (개선방안) 국민정책디자인단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BI, 슬로건 개발
개발된 BI와 슬로건은 보도자료, 각종 굿즈, 현수막 등에 공동 사용 의무화
- 국민정책디자인단 멘토 멘티제 운영 검토
 -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처음 운영하며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작년과 재작년에 이미 참여했던 기관에 직접 유선 연락을 드려 양해를 구하고 약 10회의 멘토링을 받은 바 있음
 - (개선방안) 국민정책디자인단 참여기관에 멘토 멘티제 운영 검토
서비스디자이너 선정, 디자인단 동기부여 방법, 코로나19에 대응한 활동 등

5

향후 추진계획

①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관리 지속 추진 및 전국 확산 전개

- 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센터(가칭) 건립 및 지속 추진
 - '21.08월 이사회 안건 상정을 통한 안전원 내부 지속추진 의지 표명
 - 재난 발생에 따른 찾아가는 서비스 즉각 시행 및 서비스 정교화
 - 심리적 응급처치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사전교육 지속 실시
- 교육시설 재난의 심리적 피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 확보
 - 교육시설법 개정안 연내 통과 예정

-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전 구성원을 아우르는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인지 함양
- 직·간접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가족의 심리치료 비용 지원
- 재난에 따른 응급심리개입법 전달, 역할교육 등으로 사회적 안전망 형성



-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한 혜택의 전국적 파급효과 양산

- 정책제안자(교육부 안전원), 국민정책디자인단, 교육청, 교육지원청, 전국 학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재난 트라우마 초동대응 지원 강화

- 유사한 공제 기관, 민간보험사에 심리지원 서비스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전파
 - 안전원과 유사한 공제제도를 운용하는 유관기관 등의 기관에서도 심리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우수모델과 관련 법령을 제공하여 모든 방문객을 심리 안정화 지원대상에 포함, 전 국민의 재난 트라우마 예방이 가능토록 확산
 - 전국 98%가 가입한 공제제도를 안전원이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보험사에 가입한 2%의 학교에도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역할 수행
- 학교뿐 아니라 주택, 상가 등 타 물건의 화재보험에도 심리 안정화를 적용토록 홍보



② 향후 예산 확보

- 유초·중고·대 국·공사립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책이기에 국고 신청 검토

□ 전염병(코로나19) 관련 확대 적용

- 코로나 블루(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등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국민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의 초석으로서 코로나와 같은 학교에서의 전염병 심리지원의 기반 형성추진



6 홍보실적 및 계획

□ 홍보 관련 사항 : 보도자료 배포 10건 이상

- 학교(교육시설) 재난 트라우마 관리단 출범 홍보 (2021.06.03.)

01 홍보매체	주요내용	관련사진
한국대학신문	학교 재난(화재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지속관리를 위한 논의	

- 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의 정책홍보 특별기고 (2021.08.19.)

02 홍보매체	주요내용	관련사진
한국교육신문	종합적인 재난 트라우마 관리의 필요성	

- '찾아가는 서비스' 명칭제안 공모전 홍보 (2021.08.20.)

03 홍보매체	주요내용	관련사진
국토일보	국민의 참여를 통한 참신하고 친숙한 명칭과 BI 공모	

- 심리전문가 인력풀 신설 및 모집 홍보 (2021.08.25.) 등

04 홍보매체	주요내용	관련사진
한국대학신문 외 1건	전국적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추후 활용계획 소개	

- 국민정책디자인단 사업 기반 IF국제디자인어워드 출작 예정 (2021.11월)

05 홍보매체	주요내용	관련사진
IF 국제 디자인어워드	학교 화재로 인한 트라우마 개입의 필요성	

첨부1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 실적 및 단계별 산출물

□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 실적

구분	일시	장소	참석자
1차 (킥오프)	21년 6월 02일	안전원	서비스디자이너 1명, 담당 공무원 1명, 안전원 4명, 전문가 5명
2차	21년 06월 11일	동심 아동 연구소	서비스디자이너 1명, 안전원 1명, 전문가 6명
3차	21년 06월 18일	안전원 대회의실	서비스디자이너 1명, 안전원 5명, 정책수요자 3명(교직원1, 학생2), 전문가 6명
4차	21년 06월 22일	서울 은명초등학교	서비스디자이너 1명, 안전원 5명, 전문가 1명, 정책수요자 3명
5차	21년 06월 25일	안전원 2층 회의실	서비스디자이너 1명, 안전원 6명, 전문가 2명
6차	21년 07월 02일	안전원 대회의실	서비스디자이너 1명, 안전원 7명, 전문가 1명
7차	21년 07월 13일	한양대 국제관	안전원 7명, 전문가 2명, 정책수요자 1명(교직원)
8차	21년 07월 16일	안전원 종회의실	서비스디자이너 1명, 안전원 6명
9차	21년 07월 20일	서울 연가초등학교	안전원 3명, 정책수요자 2명(교직원)
10차	21년 07월 23일	안전원 종회의실	서비스디자이너 1명, 안전원 7명
11차	21년 07월 27일	서울 봉화중학교	안전원 2명, 정책수요자 1명(교직원)
12차	21년 07월 28일	안전원 대회의실	서비스디자이너 1명, 담당 공무원 1명, 안전원 8명, 전문가 6명, 정책수요자 3명(교직원, 학생)
13차	21년 07월 29일	안전원 2층 회의실	서비스디자이너 1명, 안전원 7명
14차	21년 08월 06일	안전원 대회의실	서비스디자이너 1명, 안전원 7명
15차	21년 08월 13일	안전원 종회의실	서비스디자이너 1명, 안전원 7명
16차	21년 08월 18일	안전원 종회의실	서비스디자이너 1명, 안전원 7명
17차	21년 08월 24일	각 교수 연구실	국민디자인단 교수 일동, 안전원 1명
18차	21년 08월 24일	교육부 교육시설과 회의실	교육부 3명, 서비스 디자이너 1명, 안전원 3명
19차	21년 08월 27일	안전원 소회의실	전문가 1명, 안전원 1명
20차	21년 09월 03일	안전원 종회의실	서비스 디자이너 1명, 나인워드 2명, 안전원 7명
21차	21년 09월 09일	안전원 안전상황실	서비스 디자이너 1명, 안전원 7명
22차	21년 10월 01일	안전원 안전상황실	국민디자인단 전원(수요자 포함)

□ 국민정책디자인단 단계별 산출물

구분	단계별	주요내용	산출물
1차	1단계 (이해하기)	과제 추진계획 수립 후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설명 제공 및 각 역할에 대한 논의	국민디자인단 역할소개, 14개 과업 선정
2차		심리전문가와 함께 화재 트라우마의 위험성과 조기개입의 필요성 공유	7개의 단기 과업에 집중 결정
3차		'찾아가는 서비스'의 필요성, 전문성, 역할 등 운영 방향성 논의	'찾아가는 서비스'로 과업 집중 결정
4차	2단계 (발견하기)	화재 직후 심리지원의 공백과 빠른 개입에 대한 수요자 니즈 파악	이해관계자맵, 페르소나, 수요자 예정지도
5차		'찾아가는 서비스' 흐름도 및 72시간 골든타임 내 개입의 중요성 합의	'찾아가는 서비스' 흐름도
6차		'찾아가는 서비스'의 인력풀 구성, 정책홍보 관련 논의	인력풀 모집 및 정책홍보 방법
7차	3단계 (정의하기)	감전사고 경험 교직원 수요자 제언을 통한 화재 후 즉각 심리지원 교육의 필요성 확인	수요자 예정 지도 활동
8차		기존서비스의 시간적 지연 확인 및 교직원 등 포괄적 지원을 위한 법안개정 준비 과정 공유	기존의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한 개선과제 확인
9차		학교화재 초기진압 수요자(교직원) 제언을 통한 빠른 전문가와의 만남의 필요성 확인	빠른 심리전문가 개입에 대한 수요자의 니즈 확인
10차	4단계 (발전하기)	심리전문가와의 빠른 만남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및 최적의 안 도출	'찾아가는 서비스'의 비대면 서비스
11차		학교화재를 초기진압한 수요자(교직원) 제언을 통한 다양한 안 지속의 중요성 파악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한 대면 서비스 지속
12차		비대면 '내 손안의 마음돌봄소' 구체화 및 온택트 방식의 전문가 영상 아카이브 촬영 논의	전문가 그룹별 비대면 상담영상 콘텐츠 양식
13차		상담 개입이 필요한 기존 화재경험 사례분석 및 웹 상담 콘텐츠 구체화	상담 영상을 아카이브 구체성 합의
14차		상담 영상을 아카이브 구성 및 지속 운영에 대한 논의	상담 영상을 아카이브 지속관리를 위한 안
15차	5단계 (전달하기)	찾아가는 서비스 시범운영 체계도 논의	시범운영 체계도
16차		찾아가는 서비스 시범운영 홍보영상 관련 논의	홍보 영상 제작 일정
17차		모바일 서비스 '내 손안의 마음돌봄소' 교수 영상 촬영(대처법)	심리전공 교수 영상 콘텐츠
18차		교육부 안전원 시범운영 진행 협의	관리단 운영 결과 정리
19차		모바일 서비스 '내 손안의 마음 돌봄소' 교수 영상 촬영(재난경험자의 제언)	심리전공 교수 영상 콘텐츠
20차		성과공유대회 진행상황 공유 및 시범운영 홍보영상 내용 구성	시범운영 홍보영상 세부내용
21차		시범운영 관련 카드뉴스 공유, 최종컨설팅 대응	시범운영 홍보자료
22차		시범운영 등 사업 진행 내용 전반 공유	국민디자인단 전 구성원의 피드백

□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 총평

-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핵심문제 도출
 - 각각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수요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핵심문제를 발견하고 실효성 높은 온택트 방식의 '찾아가는 서비스' 모델 도출
- 행정안전부의 서비스 디자이너 지원을 통한 적기의 서비스디자인 기법 활용
 - 경험이 풍부한 서비스디자이너와의 협력으로 적기에 수요자를 만나고 정책 개발 전 단계에 수요자 목소리가 담기도록 과정 혁신화

□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성과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 (사회적 책임 실현) 인권과 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여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의 증대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불가피한 재난을 경험했을 때 국가가 학생을 비롯한 학교의 전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형성
 - (마음이 건강한 사회 구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화재 직후 골든타임의 심리지원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화재 트라우마의 예방 및 치료 연계 가능
 - (공적보험인 문제의 시각지대 해소) 심리지원 보장을 확대하고, 재난 경험 학교의 학생, 교직원,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컨설팅으로 심리 회복탄력성 강화
- (코로나-19 대응 성과)
 - (골든타임 내 비대면 심리지원 병행) 코로나로 대면이 제한적인 현 상황에 적합한 지원책을 신설한 것으로, 학교에 찾아가는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 병행
 - *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도 휴대폰만으로 가족보호자가 아이 케어를 위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
 - (코로나 블루 대응) 코로나 상황에서의 우울감을 해결할 전문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학교에서의 전염병 발생에도 지원 가능
 - * '내 손안의 마음돌봄소'의 코로나 19 대응성과
 - ① '뉴스를 보다가도 관련된 것이 떠올라서 괴로워요' 등의 영상과 나비포옹법과 같은 대처법은 '재난'과 갑작스러운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범국민적 활용 가능
 - ② 화상사고를 경험하고 상담·사회복지학 교수로 활동하는 이지선 교수의 '나쁜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와 같은 영상으로 희망과 극복의 메시지 전달

○ (국민참여 성과)

- (법적 근거의 마련) 국민정책디자인단과 학생, 교직원 등 국민참여자의 제안으로 실수요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시설법 개정(안) 발의 완료
- (찾아가는 서비스 모델 설계) '찾아가는 서비스'의 핵심 정책내용, 지원 방안 (비대면) 등 수요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모델 설계 과정 주도
- (대국민 설문 문항 설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인식 현황조사를 위한 국민인 정책수요자 주도의 설문 문항 설계
- (심리지원 영상 콘텐츠 구성) 국민수요자가 화재 경험 당시 가장 궁금하고 필요로 했던 질문들을 모아 각 영상 콘텐츠의 초안 도출

□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기간 수범사례

○ 국민의 참여에 기반한 정책 과업 진행